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오늘도 좋은날

삶은 축복이자 기적이다. 꿈과 희망이자 빛과 어둠이다. 기대와 설렘, 노력과 도전, 성취와 행복이다. 청춘 만 아름다운 게 아니다. 노년(老年)도 아름답다.

여자는 여자여서 행복하고 남자는 남자여서 자유롭다. 더러는 고단하기도 하고 팍팍한 그림자와 함께 하지만 그림자는 빛이 있어 존재한다. 하여, 절반은 슬프지만 절반은 기쁜 일이 찾아든다.

때로는 너덜너덜한 넝마의 삶이 질기게도 따라오지만 개운한 삶이 솔찬한 기쁨을 몰고 온다. 삶의 톱니바퀴엔 미운 얼굴도 끼어 있지만, 마음 열고 보면 다 금싸라기 같은 사람들이다. 징검다리도 될 수 있고 버팀목이 될 수도 있는 햇살같이 따뜻한 이웃들이다. 미운 자도 보내고 나면 울컥 서러워지듯 오손도손 마주 손잡고 등 따시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형제자매처럼 살 일이다. 우울증에는 최고의 약이 설렘이라는 말이 있듯이 첫 데이트 있는 날처럼 첫 키스의 추억으로 조금은 들뜨고 더러는 설레며, 꿈과 희망을 일구어나가는

내 집이 법당이요, 가족이 부처님
극락은 살아서 누리는 삶의 현장

밝은 빛으로 살 일이다.

어차피 삶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눈높이에 따라 부정적인 착각으로 어둠과 빛 사이에서 생각의 윤회를 거듭할 뿐이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착각으로 어둠과 절망 사이에서 방황할게 아니라 긍정적인 착각으로 희망을 길들이며 밝은 빛이 가득 차게 꿈을 펼치며 살 일이다. 여자는 누구나 미인이길 바라지만 아름다움의 기준은 애매하고 모호하다.

결국 남자의 마음 차지는 얼굴 예쁨보다 마음 예쁨이다. 남자는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며 성취욕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여 건강 잃고 명예 잃고 어둠의 자식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국 여자의 마음 차지는 돈과 명예보다 진솔한 믿음의 건강한 사랑이다. 세상의 절반은 여자이고 절반은 남자이다. 세상의 절반은 밤의 어둠이요 절반은 낮의 빛이다. 행복과 불행 또한 절반의 균형을 조화롭게 이어가는 것이다.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없듯 영원히 불행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시험의 지옥 경쟁의 사회, 있는 자 없는 자의 틈과 벽 사이에서 이용자가 되기도 하고 이용당하는 자가 되어 현생의 윤회를 거듭하는 게 우리네 삶이다. 그러나 신앙은 사닥다리 오르듯 하여 시야를 넓히는데 신앙의 생명력이 있듯이 마음의 빗장을 풀어 마음 열고 보면 길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꿈과 희망이 보이는 법이다.

천국의 극락세계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다. 살아서 누리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한 생각을 접고 보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수 도 있을 터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이 바뀌면 운명도 따라 바뀌는 법이다. 마음이 열리면 세상도 열리는 법이다. 아미타불이 먼 곳, 까마득한 곳에 계신 줄 알고 찾고 또 찾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곧 진리의 실체인 아미타불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내가 섬겨야할 부처님은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 상이 아니라 나의 주거공간인 집이 참 법당이요, 움직이는 부모님과 아내 남편이 극진히 모셔야할 부처님이었던 것이다. 형제자매가 보살님이요 이웃사촌이 오백나한이었던 것이다.

극락세계는 죽어서야 이르는 곳이 아닌 살아서 누리는 삶의 현장이었던 것이다. 본래 동, 서, 남, 북은 없는 것이다. 나를 기준으로 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과 팔방, 십방이 비롯되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어느 곳에 있던 세상의 중심, 오늘의 참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오늘의 주인공으로 선(善)과 악(惡)을 지배하는 또 다른 의미의 창조주가 되는 것이다. 변두리와 모서리가 없는, 아웃사이더가 아닌 인사이더의 오늘의 참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가슴 활짝 펴고 어린 날처럼 주먹 나팔 불며 신바람 나게 호호탕탕하게 살 일이다.

쌀독에 담긴 절반의 쌀을 보고 한 아주머니는 배고픈 걱정이 앞선다면 한 아주머니는 배부른 여유를 누릴 수도 있을 터이다. 큰 아들은 우산장사요 작은 아들은 양산장사이다. 비오는 날엔 둘째가 걱정이요 햇볕 쨍쨍한 날엔 큰 아들이 걱정이다. 그러나 한 생각만 접고 보면 비오는 날엔 우산 팔려 좋고 햇볕 쨍쨍한 날엔 양산 팔려 날마다 좋은 날이다. 생각 바꿔 오늘도 좋은날로 살 일이다.

千經萬論의 끝은 본심부처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홍인(弘忍: 601~674) 대사는 도신(道信) 대사로부터 법을 전해 받은 중국 선종의 5대 조사다.

선종사에서 홍인 대사는 동산법문의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하고 〈금강경〉으로 선법을 드날린 새로운 가풍을 보였다. 그가 제자 육조 혜능 스님에게 법을 전해줄 때도 〈금강경〉을 설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달마 대사로부터 도신 대사에 이르기까지 〈능가경〉을 중시하여 선행을 닦은데 반해 홍인 대사는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았던 것이다.

홍인 대사에게는 특유의 전설이 있다. 그가 전생에 산중에서 소나무를 심으며 수행했던 재송도인(栽松道人)의 후신이었다는 설화다. 소나무를 심으며 살던 그는 늘그막에 도신 대사를 찾아가 출가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재송도인은 도신 대사를 두 차례를 찾아갔는데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도신 대사가 재송도인을 보고 세속인연이 아직 남아 있어 출가할 때가 아니라고 말해준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는 다시 도신 대사를 찾아가 출가를 원했다. 그때 나이가 이미 80세였다. 도신 대사는 재송도인에게 너무 늙었으니 몸을 바꾸어 오라고 했다. 이 말은 금생은 너무 늙었으니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 출가하라는 말이었다.

노인은 산을 내려가 산 밑에 있는 탁향(濁港)이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마침 한 처녀가 개울가에 빨래를 하고 있었다. 노인이 물었다.

"내가 그대의 집을 빌려 하룻밤 묵었으면 하는데 되겠는가?"

처녀가 말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대는 허락하는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녀가 집으로 간 사이 노인은 멀리 가지 아니하고 한 나무 밑에 앉아 죽어버렸다. 이 일이 있은 후 이상한 일이 생겼다. 빨래하던 처녀가 동정녀인데도 임신을 하게 된 것이다. 부모가 노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으며 지내다 기어코 아이를 낳았다. 부모가 아버지 모르는 아이라 하여 밖으로 안고 가 강물에 던져 버렸다. 나중에 보니 아이가 죽지 않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일설에는 학들이 와서 아이를 지켰다고 한다. 이런 이상한 조짐을 보고 아이를 다시 건져와 키우게 되었다.

이 아이가 자라 7살이 되었다. 하루는 황매산에 갔다가 길에서 도신 대사를 만났다.

"동자는 성이 무엇인가?"

"제 성이 보통 성이 아닙니다."

"무슨 성이기에?"

"불성입니다."

"그 불성을 너는 아직 알지 못할 것이다."

"저만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삼세제불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불성이 공하기 때문이지요."

도신 대사는 그를 출가시켜 가르쳐 나중에 의발을 전해 5조를 삼았다.

불교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전생의 인연을 자주 설해왔다는 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도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설한 본생담(本生譚: Jataka)이 있다. 말하자면 초역사적인 이야기가 수없이 설해지고 있다. 5조 홍인 대사의 전생 이야기인 재송도인의 설화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마치 기독교의 예수가 마리아 동정에서 태어난 것과 비슷한 이야기다.

달마 대사의 이야기에는 부활 이야기도 있다. 독을 마시고 죽은(일설에는 독살설) 달마 대사의 시신을 땅에 묻은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달마 대사가 지팡이에 짚신 한 짝을 꿰어 메고 총령을 넘어가는 것을 한 관리가 보았다. 이 관리가 확인 차 무덤을 파 헤쳤을 때 시신이 없어졌더라는 것이다.

홍인 대사의 선사상을 요약해 말할 때 본래의 진심을 지키는 '수본진심(守本眞心)' 이라고 한다. 그는 문하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나는 그대들이 스스로 본심이 바로 부처인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까닭에 그대들에게 간절히 권하기를 천경만론(千經萬論)이 각자의 본래 진심을 지키는 것(守本眞心)만 못하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는 스승 도신 대사의 '수일불이(守一不移)' 를 실천적인 면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라고 후대 사람들은 보고 있다.

일체 존재의 근원, 바로 마음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⑤분별과 마음

6조 혜능 선사가 남악회양 선사에게 말했습니다. 인도의 반야다라 존자가 예언하기를, "네 발 아래에서 말 한 마리가 나와서는 천하 사람들을 발길질로 차 죽이리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마조 선사가 천하 사람들의 분별망념을 없애버리고 깨달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마조 선사가 상당(上堂)하여 말했습니다.

"대중들이여, 각자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며, 이 마음 그대로가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확신하라. 남천축국에서 온 달마 대사는 이 땅에 상승(上乘)의 일심법(一心法) 만을 전해 주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또한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의 마음을 밝혀 놓은 것은, 사람들이 이 일심법을 믿지 않을까 염려해서이다. 경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 부처가 말한 마음을 근본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처가 말한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즉, 이 마음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가 말한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네가 혹시 마음을 알고 싶다고 말한다면, 지금 바로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네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바로 부처라고 일컫는 것이며, 또한 실상법신불(實相法身佛)이며, 도라고도 일컫는 것이다. 자네의 심성 그것은 본래부터 부처였으므로, 그 외에 달리 부처를 구하지 말라! 자네 자신이 이미 금강정(金剛定)에 있으니, 일부러 마음을 모아 선정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 설령 마음을 모으는 일에 능숙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구극(究極)의 길은 아닌 것이다."

마조 선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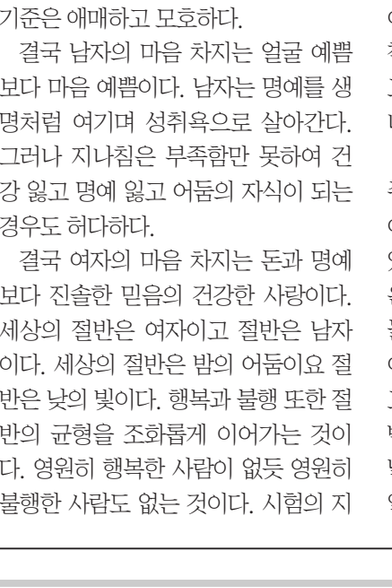
"눈에 보이는 일체의 대상(對象)은 모두 마음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눈으로 대상을 볼 때 그것은 모두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다. 마음은 그 자체만으로는 마음일 수 없으며 아무런 의미도 없다. 대상과 더불어 비로소 그 의미를 갖게 되며, 대상과 관계 맺을 때에만 마음일 수 있다. 대상 또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대상일 수 없으며, 마음과 더불어 그 의미를 갖게 되며, 마음과 관계 맺을 때에만 대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도 대상을 보는 것은 곧 마음을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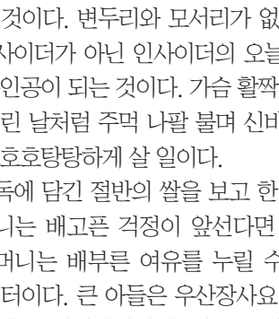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무엇 하나라도 스스로 있지 못하고 다만 대상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실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은 스스로 자신을 만질 수가 없어서 대상을 만지며, 칼은 스스로 자신을 자를 수 없어서 대상을 자르며, 눈은 스스로 자신을 볼 수 없어서 대상을 보며, 귀는 스스로 자신을 들을 수 없어서 대상인 소리를 듣습니다. 눈이 대상인 책을 볼 때 눈이 없으면 책이 없고, 책이 없으면 눈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책은 눈으로 인해 있고, 책은 눈으로 인하여 있습니다. 눈은 스스로 있지 못하고 책으로 인하여 있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책 또한 스스로 있지 못하고 눈으로 인하여 있으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책은 눈으로 인하여 없기 때문에 눈은 없는 것도 아니고 책 또한 없는 것도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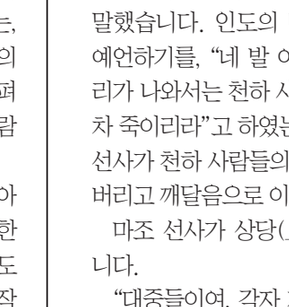
우주의 일체 존재가 이와 같이 있음과 없음에 속하지 않고 있음과 없음을 떠나 있지만, 우리들은 있음과 없음에 집착하여 때로는 있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며, 때로는 없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면서 갖가지 분별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티끌 수와 같은 분별의 이분법(二分法)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들의 허망한 생각 속에 존재 할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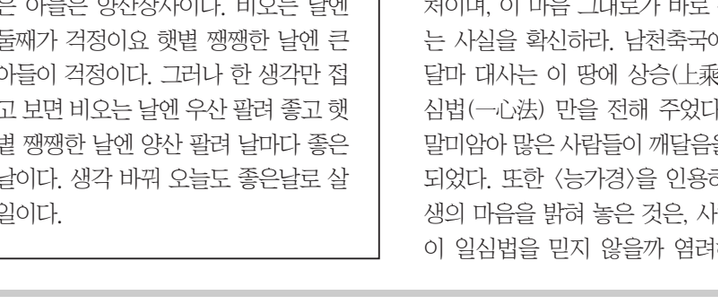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제11기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강생 모집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목 : 49재 의식(평염불), 천수바라, 도량게, 작법무, 사물 다루는 법
■ 장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미륵당길 70 봉업사 (☎ 031-676-0900)
■ 시간 :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1년과정)
■ 비용 : 입회비 200,000만원, 수강료 무료
■ 개강일시 : 2017년 3월 3일 오전 9시

특강
법고무 - 문곡스님
성명학 - 삼규스님
태평소 - 시우스님

연락처 ▶ 회 장(관희) 010-8290-6623
강 주(문곡) 010-3727-0870
총 무(진효) 010-5306-0856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관희 합장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